무안 환경업체 폐기물 불법 재위탁 처리 말썽

순천·나주·충남 등서 낙찰
운송비용 아끼기 위해
현지 업체에 재위탁 '위법'

무안군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인 A 환경업체가 충남 보령시와 순천시 등지에서 낙찰받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재위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본보가 입수한 A 환경업체 낙찰자료에 따르면 업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결쳐 낙찰받은 건설폐기물을 자사 시설로 반입해 재처리하지 않고 순천과 나주, 충남 보령 등 타 폐기물 업체에 재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A환경업체는 지난 2013년 5월에 충남 보령시 수도사업소에서 '농·어촌지방 상수도 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5억여원)을 낙찰받아 현재까지 위탁을 진행중에 있으나, 폐기물 일부를 25t 대형 트럭으로 운반해 충남 보령 소재 B환경업체에 재위탁했다.

또 2013년에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사무소의 '주암댐 비상 여수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1억여원)을 낙찰받아 올 연말에 완료할 계획인데, 그중 일부도 순천에 있는 C환경업체로 재위탁됐다.

이 밖에도 순천시 맑은물 관리센터의 '인월(남재)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2억여원)와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800만여원)에서 낙찰받은 일부도 순천에 있는 C환경업체로 재위탁됐고, 광주 전파관리소(5500여만원)에서 낙찰받은 일부는 나주 D환경업체로 재위탁됐다.

이처럼 업체가 위법을 하면서까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입찰에서 낙찰받더라도 업체 소재지인 무안와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운송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운송비용마저 증가해 그만큼 회사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A환경업체는 지난 1996년에 설립돼 현재 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전문, 소각처리전문), 폐기물수집 운반업, 폐기물 재활용업 등 여러 가지의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A환경업체 대표는 "다른 업체들도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처벌수위가 낮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재위탁을 받은 B, C, D업체들 역시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겠다. 불법 재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제보를 받지않고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불법적인 재위탁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에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허가취소, 천재지변 등) 발생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악=임동현기자 idh@

함평군의원 인격모독성 발언 파문

집행부 간부에 막말…공무원 노조 반발

함평군의회 모 의원이 집행부 간부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함평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최근 끝난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추사 김정희 미술관' 건립관련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에서 해당 주무과인 문화체육관광과 B 과장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해당 주무과장과 실무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를 끄고 비공식 자리임을 공지한 뒤 주무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B 과장에게 "수십년 공직생활을 했으면서 그것밖에 안되냐,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실망스럽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과장은 "행정업무는 주무과장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취급을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했다.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은 "A의원이 과거에도 6급 공무원을 상대로 인신공격과 폭언 등을 행사해 노조가 강력 대응해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번 일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대책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의원은 "목소리를 크게 올린적도 없고, B 과장에게 수차례 반복된 질문을 했는데 신선한 답변을 못하고 반복된 답변만 계속해 '실망스럽습니다. 그만합시다'라는 말은 했어도 모독성 발언은 한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함평군 상수도 보급률 2017년까지 93%로

함평군이 2017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93%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는 민선 6기 공약사항 77.2%보다 15.8%P나 높은 수치다.

그동안 함평군은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보급률 확대에 힘써 왔다.

이를 위해 안병호 군수는 군의회와 함께 수차례에 결쳐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낙후된 지역 발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국비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44.1%(도내 평균 77.7%)에 불과한 보급률을 지난해 67.4%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군은 환경부 농·어촌, 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에 따라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35억원을 투입해 208㎞의 관로를 부설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45억원을 투입해 해보, 손불, 신광면의 상수도 관로 44㎞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변 30개 마을에 급수관로 50㎞를 시설한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감자농사 기계화로 인건비 64% 절감 최근 영광군 홍농읍 신석리 들녘에서 농기계를 이용한 감자수확 작업이 한창이다. 영광군은 김자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한 결과 10a(300평)당 인력대비 22% 증수와 64%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군 제공〉

종묘회사 '씨앗과 사람들' 영광으로 이전

郡과 양해각서…연말까지 생산설비 등 설치 완료

영광군과 종묘회사 (주)씨앗과 사람들(대표이사 박태훈)이 최근 기업이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 이번 MOU에 따라 (주)씨앗과 사람들은 경남 함안에서 영광으로 이전하게 된다.

업체는 그동안 확고히 구축한 농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해양성기후를 활용한 순도높은 종자생산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양파, 대파 등의 재배면적 확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업체는 10억원을 투자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생산시설 및 기반정비, 정선기 등 관련시설을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이듬해부터 전 공정을 영광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양파 채종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염산면 6농가 2.5ha의 하우스에 ㈜씨앗과 사람들과 양파 종자채종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박태훈 대표이사는 "현재 양파, 대파, 당근 등 17개 품종을 생산해 국내 보급 9억원, 수출 1억여원의 매출 규모를 갖추고 있다"면서 "영광으로 이전해 현재의 생산 규모를 2.5배 확대하고, 매출액을 2018년까지 25억원으로 크게 늘려 영광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신안군 '해양관광 활성화' 직원 요트 교육

신안군이 직원 78명을 대상으로 '세일요트' 교육에 나섰다. 세일요트는 돛을 이용해 유람이나 항해, 경주에 쓰이는 속도가 빠른 서양식의 소형 범선이다.

군은 세한대 SRL해양레저특성화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직원들의 세일요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지난 6일 시작해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목포 삼학도 소재 목포 요트마리나에서 실시되며, 요트면허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기 교육이 병행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세일요트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해양생태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50 피트(15.2m)급 쌍동선 세일요트 1척을 건조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 운항할 방침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무안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시

무안군은 사망자 상속재산에 대해 사망신고와 재산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비롯해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유무,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등 6종의 각종 재산조회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절차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민원실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라 상속 1순위자(직계비속,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 자(직계존속, 배우자)가 된다.

또한 자동차와 지방세, 토지정보는 7일 이내에 군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국세와 국민연금 정보, 금융거래 정보는 20일 이내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남악=임동현기자 idh@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 적
1층	은행(ATM),편의점, 소매점	임대완료
2층	은행, 보험, 증권 기타사무실	잔여 1201 ㎡
3층		1629 ㎡
4층		1267 ㎡
5층		1400 ㎡
6층		임대완료
7층		1400 ㎡
8층		1383 ㎡
9층		잔여 591㎡, 307㎡
10층		1342 ㎡
11층		1307 ㎡
12층		임대완료
13층		임대완료
14층		임대완료

상무비즈센터
(구.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분양/임대

목포하당 랜드마크에 개원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
백년대로 기독병원 맞은편 최적의 중심상권에 위치!
아파트 배후세대가 6,000세대의 대단위아파트 조성!

층별	계약면적(㎡/평)	업 종	비 고
지하층	1,337(404)	주차장	
1층	1,000(302)	은행, 증권사, 약국, 커피숍	
2층	878(265)	은행, 병원, 커피숍	
3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4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5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6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7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8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임대료3.3㎡당 27,000원 (1,2층별도문의) 관리비3.3㎡당 8,000원

SL빌딩 임대관리 010-2618-7234
건물주소 목포시 백년대로(상동)